

불안한 '넛트류 시장', 가격 인상 되려나?

아몬드와 호두는 강·보합세, 건포도 가격 폭등 예상

넛트류 시장에 불안감이 드리워지고 있다. 미국 산지의 아몬드·호두·건포도의 수확량 감소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안정과 업체간 경쟁으로 아몬드와 호두는 소폭의 가격인상 또는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지만 건포도는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수급마저 불안정해 불안감을 던지고 있다.

최근 들어 넛트류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가격 폭등으로 흥역을 치른 바 있는 넛트류 시장이 이번에는 미국 산지의 98년산 수확량 감소로 또다시 가격 인상과 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품목은 이미 지난해 12월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가 수급 불안정으로 구입조차 어려워지는 등 불안감을 던지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넛트류 시장은 보통 산지에서의 수확량 감소와 환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5년에는 아몬드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97년 10월부터 시작된 급격한 환율 폭등으로 지난해 넛트류의 가격이 50~70%까지 상승함에 따라 제과점에서 사용량을 줄이는 등 수요가 크게 준 것은 수확량과 환율에 따른 시장 불안 요소를 잘 나타내는 예다.

지난해 넛트류 시장의 침체가 환율 상승의 여파가 주원인이었다면 올해의 불안 요소는 국내 넛트류의 공급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산지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이다. 대표적 넛트류인 아몬드와 호두를 비롯해 건포도는 대부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공급된다. 이들 품목은 여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기상 조건이 수확량을 크게 좌우한다.

꽃이 피는 개화 시기의 기상이 좋아야 결실이 많게 되고 결실 및 수확 시기에도 기상 여건이 좋아야 수확량이 많아진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 건포도는 개화 및 결실, 수확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해에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아몬드의 수확량이 크게 저조했다고 할 때 호두나 건포도 역시 너나 없이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년에 비해 기상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도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순조로운 기상 여건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폭우로 인한 홍수와 고온 현상에 따른



수확량 감소에도 건포도를 제외한 넛트류 가격은 변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 지난해 이들 품목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넛트류 수확량 저조, 건포도는 심각한 수준

실제로 전세계 물량의 1/2을 차지하는 미국 산지의 지난해 아몬드 수확량은 97년에 비해 6%의 감소를 기록했다. 다른 농산물처럼 아몬드도 수확 이전에 다음해에 판매될 물량의 가격이 형성된다. 따라서 수확량 감소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지난해 아몬드의 국제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5% 정도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었다.

전세계 교역량의 2/3를 차지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호두의 수확량도 감소했다. 지난해 호두의 수확량은 97년에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 기온으로 인해 호두에 검은 점이 생긴 제품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두도 지난해 국제 선물 가격이 3~5% 오른 상태에서 거래됐다.

건포도는 아몬드, 호두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에서는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98년산 수확량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포도의 국제 선물 가격은 70% 오른 상태에서 거래됐다. 이런 사실은 건포도의 수확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건조 과

정에서의 기상 악화가 수확량 감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건포도는 포도를 노지(露地)에서 수분이 15% 정도가 되도록 말리는데 이 기간 중 비가 자주 오는 등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부패한 건포도가 생기는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다량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산 건포도의 수확량은 지난해 97년에 비해 50%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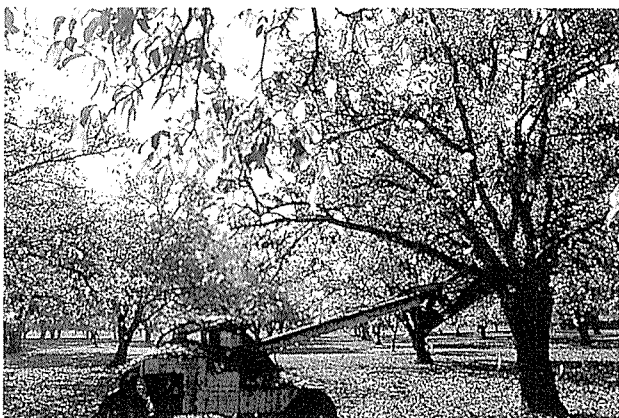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너트류는 아몬드, 호두,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마카타미아넛이다. 하지만 아몬드, 호두가 너트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베이커리 업계의 너트류 사용량은 지난해 가격 급등으로 사용량이 크게 줄어 아몬드가 월 50톤, 호두는 25톤, 건포도는 120~130톤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업체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포도 값 급등, 너트류는 강·보합세 될 듯

미국 캘리포니아 산지의 수확량 감소는 98년산 너트류의 선물 가격 인상을 불러오게 했다. 따라서 99년에 판매될 국내의 너트류의 소비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과 관련해 아몬드와 호두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며 다만 건포도만 '초강세'를 띠게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아몬드는 수확량 감소와 국제 선물 가격 인상으로 가격이 13~15%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말 아몬드는 도매가 기준 kg당 1만 1,100~1만 2,000원대로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말 달러당 환율이 1,250원대로 내렸기 때문이다. 또 업체간 경쟁으로 가격은 약간 오르거나 안정을 보이는 '강·보합세'를 펼 전망이다.

호두 역시 98년산 국제 선물 가격이 3~5% 상승해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지난해말 가격이 도매가 기준 kg당 1



너트류 및 건포류 수입업체 현황

업체명	품목
길림양행	아몬드, 호두, 건포도, 마카타미아, 캐슈넛, 건살구, 건무화과, 헤바라기
나라통상	아몬드, 호두, 건포도, 피스타치오
루코	아몬드, 호두
원이농산	아몬드, 건포도
삼림유지	아몬드, 호두, 건포도
대한제당	아몬드, 건포도, 호두
서울하인즈	건포도
제원인터내쇼날	호두
두정인터내셔널	아몬드, 호두

만 1,200~1만 3,000원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호두는 최고 500~1,000원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환율 하락과 업체간 경쟁으로 지난해와 같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 안정세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건포도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 선물 가격이 70% 오른 데다가 제과점에서 사용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kg짜리 도매가가 3만 1,000원대이던 건포도는 12월 중순 경에는 3만 7,000~3만 8,000원대로 올랐으며 올해 1월초에는 4만 1,500~4만 2,000원대의 가격이 예상돼 34%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포도를 제외한 아몬드, 호두의 올해 예상 가격은 지난해 수확량 감소와 국제 선물 가격 상승에 따라 예상되던 인상 가격보다 낮다. 이는 환율 인하와 업체간 경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아몬드나 호두 가격이 크게 인상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업체가 너트류를 취급함으로써 수익률을 낮춰가며 가격 경쟁을 펼친 결과이다.

실제로 이들 재료를 취급하는 업체는 과거 길림양행, 나라통상 정도였으나 현재는 원이농산, 두정인터내셔널, 제원인터내쇼날, 서울하인즈, 루코, 삼림유지, 대한제당으로 늘어났다. 특히 수입과 판매 물량이 대단위여서 많은 자금력을 필요로 하는 너트류 시장에 최근 들어 삼림유지와 서울 하인즈, 대한제당 등 대기업이 뛰어들었으며 가격과 관련된 업체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너트류 시장은 건포도를 제외하곤 환율 하락과 업체간 가격 경쟁, 기타 요인 등으로 비교적 안정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 품목인 너트류 시장은 항상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다. 즉 과거와 달리 잦은 기상 이변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그 당시 수확량에 따라 국내 시장이 가격 등락에 영향을 받을 요소가 계속 존재해 있기 때문이다. [6]

〈글/박종선〉